

자료제공 : 2023. 2. 1.(수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행정국 인력개발과

인력개발과장	김형태	2133-5750
인재노무팀장	은진아	2133-5752
담 당 자	황정연	2133-5753

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: 3매

## 서울시, 시민·직원과의 동행을 위해 공무원노조와 집중토론회개최

- 정상훈 행정국장, 서울특별시 공무원노조와 적극적인 창의행정을 위한 끝장토론 개최
- 시민들의 편의성을 재고(再考)하면서, 직원들의 행복을 제고(提高)할 수 있는 방안 모색
- 소통의 시간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디센티브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

- 서울시는 노조 임원 중심의 노사실무회의를 넘어 현장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창의행정을 추구하고자 행정국장과 노조 조합원이 함께하는 집중토론회를 지난 1월 31일 개최하였다.
  - 집중토론회는 오세훈표 창의행정의 본격적 도입을 앞두고 정상훈 행정국장이 공무원노조 측에 먼저 제안하였으며,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총 3시간 30분 동안 끝장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.
- 이 자리에서 양측은 서울시 직원들이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소신을 다하여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과 창의행정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서로 소통하였다.

- 노조측은 ▲불요불급한 회의 축소 및 일 버리기 도입, ▲안정적 시민 서비스를 위한 사업소 인원 보강, ▲직렬별 전문성 보장, ▲공정한 근무 평정과 다면평가 운영에 따른 신상필벌, ▲다자녀 직원 인센티브, ▲퇴직준비교육의 다변화 등 인력운영·성과평가·교육훈련·후생복지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.
  
- 정상훈 행정국장은 공무원의 권익 실현과 성과 보상에 대해 깊이 공감 하면서도 공직자 본연의 의무와 자세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, 특히, 본인의 일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발굴하자는 창의행정의 개념을 강조 하였다.
  - 창의행정은 새로운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지 않은 일은 버리고, 자신의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살피 시민들의 편의성을 재고하자는 것으로 공무원이라면 가져야 할 자세라고 전했다.
  
- 아울러, 노조가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선도하는 주체가 되어 주기를 희망하면서 ▲합리적인 창의행정 보상체계 확립, ▲유연 근무제 적극 도입, ▲비상 근무 발생 시 정당한 보상, ▲조직진단을 통해 조직의 효율적 운영 등 새로운 변화에 직원들 스스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전했다.
  
-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동시에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하여 공무원 노조를 포함하여 다양한 직원들과의 ‘소통의 시간’을 적극 개최 할 예정이다.

□ 관련사진

